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꽃을 통한 여성의 상징적 회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진솔

꽃을 통한 여성의 상징적 회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진솔

인 준 서

김진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사회 속에서의 여성은 다른 조직인 가족이란 구성원의 중요한 존재이다. 여성들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회와 개인이 원하는 형태의 모습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여성들은 맞벌이와 육아 그리고 또 다른 스트레스들을 이중삼중으로 겪어오고 있으며 이들은 본인의 만족보다는 타인에 맞추기 위한 규격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인에게서 지속적인 강요와 억압을 받다보면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져 자신만의 감정에 소홀해진다. 이러한 삶 속에서의 허무함과 피로움 고통들은 ‘여성’을 시들게 한다.

언론에서 자주 비취지는 부분이 범죄에 관련된 기사이다. 여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해를 입게 된 여성들이 사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본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풀어보고자 하며 일상생활 안에서의 여성들을 관찰하고 사회의 현상들을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본인과 같은 성(性)을 가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규범 안에서 여성평등 사회를 외치지만 여전히 그 이상의 용기나 진취적인 모습이 아닌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을 하나의 상징체로 꽃과 연관 지어 다양한 구성안에서의 이미지를 통해 작품을 살펴보면, 여성의 내면적인 정서와 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호간에 어떤 관련성과 특성이 있는지 연구 하였고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꽃과 여성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 사회 안에서 갖게 된 ‘여성성’이라는 규범 안에서 길들여져 있던 본인의 시각을 다른 관점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많은 이들의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하며 사회에서 바라는 여성에 국한 되지 않고 관찰의 대상인 여성의 내면적인 정서와 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서로 부합하여 만들어 내는 표현의 특징에 연구 중점을 두어 작품을 설명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꽃에 반영된 여성성	3
2 작품 제작 과정	8
3 작품설명	11
III. 결론	22

작품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알려줘, 종이에 혼합재료, 130.3×97.0cm, 2013	11
[작품 2] 알고 싶다 너를, 종이에 혼합재료, 116.8×91.0cm, 2013	12
[작품 3] 끝은 어딜까, 종이에 혼합재료, 131×120cm, 2013	13
[작품 4] 접시꽃, 종이에 혼합재료, 145.5×102.5cm, 2013	14
[작품 5] 수선화와 너, 종이에 혼합재료, 72.7×60.6cm, 2013	15
[작품 6] 창문 밖, 종이에 혼합재료, 53.0×45.5cm ×2, 2013	16
[작품 7] 나를 봐줘요, 종이에 혼합재료, 116.8×91.0cm, 2013	17
[작품 8] 너에게, 종이에 혼합재료, 72.7×60.6cm ×2, 2013	18
[작품 9] 갇히다, 종이에 혼합재료, 162.2×130.3cm, 2013	19
[작품 10] 커튼 뒤에서, 종이에 혼합재료, 60.6×72.7cm, 2014	20
[작품 11] 끼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다, 종이에 혼합재료, 145.5×112.1cm, 2014	21
[작품 12] 기억 속에서, 종이에 혼합재료, 162.2×90.7cm, 2014	31

I. 서 론

위 논문은 2014년 '흐르고 흐르다' 이란 제목의 석사 청구전을 통해 발표된 2013년부터 2014년 까지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제도 안에서 억압받고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들을 개인의 일상 속에서의 여성들은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여 본인의 시각을 통해 일상을 관찰 하고 그려낸 작품에 대한 논문이다.

사회 밖, 안의 여성들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공공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편견과 시선 그리고 수동적으로 키워진 모습 등과 본인의 만족보단 타인을 위한, 타인을 의식하도록 만든 제도가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여성들은 자신보다는 가부장적인 남성들과 제도에 지쳐 이러한 여성의 피지배적인 모습들은 나약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동화 되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본인 또한 여성이고 또 직간접적인 체험을 거듭하고 느끼며 그들과 같은 동질감을 나에 대한 정체성과 연결되어 본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한 것임을 느끼며 감상자의 모습으로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의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꽃은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인에게 꽃은 단순히 재현해 내는 것이 아닌 관심의 대상을 본인의 삶과 연관성을 찾고 그 대상을 표현해 내고자 하였다. 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여성과 사물에 비유되곤 한다.

본인의 작업을 통하여 본 연구 방법은 일상 속에서의 여성들을 관찰한 뒤 여성들의 관심사나 갈등, 대립들을 본인의 시각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표현

해 낸 뒤 점차적으로 꽃에 비유되는 과정과 기법적인 부분에서 작업이 표현주의 방식으로 변화 되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설명 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작업의 발단과 작업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재료에 따른 표현 기법으로 소개하고 일상 속에서 관찰한 여성들을 꽃에 비유하여 꽃이 가지는 회화성에 대해 연구하고 기존 여성 작가들이 내포하고 있는 여성성을 통해 살펴본다.

II. 본 론

1. 꽃에 반영된 여성성

유년시절 본인의 일상은 자연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관찰하는 태도는 지속되고 있어 현재도 자연을 좋아하고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지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무묘한 일상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꽃이다.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에게 꽃은 따뜻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 꽃을 볼 땐 항상 어머니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고 꽃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어머니가 관심을 주고 또 지극정성 때문이었다. 처음엔 어머니의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에너지에 매료 되었고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심상들을 꽃으로 치유하여 보다 생활이 풍만해져 활기를 되찾곤 하였다. 생활 안에서의 공허함이 느껴지면서부터 본인에겐 단순한 표현 대상이 아닌 상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하나의 생명체로 상징되었다.

이렇듯 꽃과 삶은 어떻게든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져왔다.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꽃은 보편적으로 여성을 상징 한다는 것이었다.

또 부드럽고 연약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형태의 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을 가지게 만들어 준다. 많은 사람들의 삶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꽃은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곁에서 있었다. 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 되어 왔고 본인 또한 꽃을

보며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왔다. 단순히 꽃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였지만 성인이 되서는 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상의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꽃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꽃이 상징되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들은 다양하다.

흔히 여성과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일을 표현할 때 도 사용되어 지고 어떤 사물을 표상하기도 한다. 꽃의 탄생과 결실 그리고 소멸 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소녀가 처녀로 성장 되어가는 모습으로 의인화시키기도 하고 집안의 경사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땐 꽃의 의미를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모든 이들은 꽃과 여성 그리고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연결하여 말하길 좋아한다. 꽃이 피어있는 곳엔 향과 특유의 화려함으로 사람과 곤충, 모든 생명을 곁으로 끌어 모은다. 흔히 보는 꽃들은 이렇듯 여성스러움과 환상 그리고 강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꽃과 여성은 약하다고 보지만 본인이 관찰한 여성들은 곁으로 다 강인함을 가지고 끊임없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와 강인함은 일상에서 본인을 위한 상징이기 보다는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타인을 위한 의식 같았고 본인이 주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였다.

이런 생각들은 본인 주변의 여성들과 의 관계 즉 환경적 요인의 작용이 크며 꽃은 여성을 표현하는 상징과 장식 그리고 내면을 보여주는 본인의 감정에서 표출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표현되어진다.

일상에서 가장 본인과 가깝게 있었던 꽃과 여성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추하고 강인하고 가장 쉽게 짓눌리는 존재로서의 동일한 존재이다. 처음에는 일상 속에서의 무의미한 관찰로 시작하였지만 본인에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렇듯 꽃이라는 독립적인 형태

로 표현하기 때문에 꽃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형상을 통해 조형적으로 표현 하였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은 본인의 삶에 있어 유년시절을 회상하도록 도와줬으며 본인의 일상과 삶을 풍만하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확인을 해나가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여러 작품 안에서의 여성이 꽃에 비유된 사례는 다양하고, ‘여성성’을 전체로 하고 있다. 미술사 속에서의 여성성은 남성을 통해 표현 되어 왔고 작품에서 재현 되는 여성성은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 타인의 시선에 비친 여성성이다. 반면에 여성작가의 작품에서의 여성성은 여성 자신의 경험을 통한 재현임을 알 수 있다.

‘여성성’이란 여성에 대한 개념이고 정의이다.

여자의 몸을 타고 난 일군의 인간의 성격이 이래야 되고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규정하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다.¹⁾

본인의 작업에 영향을 준 작품들은 조지아 오키프²⁾, 천경자³⁾의 작업이다. 이들의 작품에선 ‘여성성’이 부각되며, 공통적으로 굴곡 많은 삶을 겪어지면서 견뎌야 했던 그들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현대의 페미니즘을 지칭하며 ‘여성해방운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권리와 평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운동과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인에게 영향을 준 작가인 조지아 오키프와 한국의 천경자

1) 신지영, 『문화연구로 본 한국 현대 여성미술사 꽃과 풍경』, 미술사랑, 2008, p43

2)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년 11월 15일 (미국) ~ 1986년 3월 6일) 미국의 여류화가. 자연을 확대시킨 작품을 주로 그렸다. 서유럽계의 모더니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추상 환상주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20세기 미국 미술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위키백과]

3) 천경자(千鏡子, 1924년 11월 11일 ~ 2015년 8월 6일) 여류 화가·수필가. 전남 고흥(高興) 출생. 1944년 도쿄 여자 미술 대학(女子美術大學)을 졸업하고, 12회에 걸쳐 개인전(個人展)을 열었다. 1955년 국전(國展)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1962년 필리핀국(國) 초대전(招待展) 출품·1964년 문예상(文藝賞) 수상·1965년 동경 이도 화랑(畫廊)에서 개인전을 열고, 같은해 홍익대 교수가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의 화풍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며 대표 작품을 살펴보겠다.

조지아 오키프는 여성의 존재로써 20세기 초부터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며 여성성에 바탕을 둔, 그러나 결코 여성성에 한정되지 않는 조지아 오키프만의 신비스럽고 상징적인 고독하고 강인한 화풍을 만들었다.



<그림 1> Georgia o'keeffe, white calla lily, 1927, oil on canvas, 81.3×43.2cm

작품을 살펴보면 조지아 오키프는 독특한 시선으로 꽃의 내부를 과감하게 확대 시켜 표현 하고 있으며 주로 자연을 확대 시켜 자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탐미 하고자 화면에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남성이 상투적이고 감상적인 장식용으로만 생각한 꽃을 본인만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탄생 시키며 남성의 권위에 물들어 있던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화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천경자의 작품에는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이 많은데 그중 여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꽃'이다. 천경자는 여성을 꽃과 같은 존재로 보

는데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꽃과 여성을 동일시하던 사회적 구조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꽃은 생명, 일시성, 허망함 등을 상징한다. 천경자는 부계적 개념의 여성성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지만 여성적 특성들이 화단에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소재인 한(恨)이라는 주제와 꽃과 여성성을 접목 시켜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몽환적이며 아름답게 승화시킨 점에서 미술계 큰 의미를 주고 있다.



<그림 2> 아라만다의 그늘, 천경자, 종이에 채색, 1985 ,94 x 130cm, 1985

천경자와 조지아 오키프는 본인에게 색감과 여성성을 표현함에 있어 많은 상상력을 주었다. 그들의 작업 안에서의 여러 감정을 포함하며 울림과 퍼짐 그리고 내면의 감성적인 부분과 여성의 한을 집중 표현함에 있어 많은 영감을 얻었다. 같은 여성작가이며 같은 주제인 꽃과 여성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지만 본인은 일상 안에서의 여성들을 관찰하며 꽃으로 풀어내어 다가가고자 하였다. 그들이 내는 다양한 색채 표현으로 감정을 더욱 자유롭게 표출 시키는 작업 들을 보며 화면 안에서의 깊이감과 표현을 자극하고 있으며, 본인의 작업에서는 내면세계를 극대화 시켜 감정적인 표현으로 자

신이 원하는 부분인 꽃의 형태에 감정을 극대화 시키거나 꽃과 여성을 함께 표현하여 작품 속 뒷모습인 여성의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감정에서 표출된 상징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표현 하였다.

2. 작품 제작 과정

처음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하게 된 계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범죄의 증가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커져 갈수록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제도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은 사회적인 약자임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회 변화 안에서 본인 또한 어떤 자세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라는 자문 하게 되면서 같은 여성의 시각으로 본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어떤 심경일지 조금 더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범죄의 피해자는 타인의 시선에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서 지낸다.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점은 주변인들에 의한 2차 정신적인 고통이 공통점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주변의 피해 입은 여성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피해자의 심경에 집중하여 그들이 겪은 감정을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본인이 느낀 사회의 문제점인 이 부분을 작업으로 옮겨 그들을 상징, 대변하고자 ‘꽃’에 의미를 부여하여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였던 피해자가 겪고 있는 감정을 자유롭게 창출해 낼 수 있었다.

꽃은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하며 보는 이에게 여러 방식으로 재현해 낼 수 있도록 미적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본인의 작업에서 서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약하고 여린 꽃이 주제가 되었지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아닌 내면적, 상징적인 의미들이 내포된 대상으로 꽃이 보여주는 형상이 아닌, 본인 주관적인 표현 상태로 꽃의 형태가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듯 무너지고 흐트러지며, 흐르고 흘러 겹쳐지고 다시 지워지며 꽃과 꽃잎들이 서로를 충돌 하고 가리며 시각적인 표현으로 재현해 낸 꽃과 감정을 나타내는 정신을 상징하는 강렬함과 대비되는 부드러운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현과 상징하는 색은 서로 다른 감정을 나타내므로 색채의 특성을 살려 색을 표현함으로써 나타내는 존재 의미를 가지고자 하였다.

'바실리 칸딘스키'⁴⁾또한 예술에 있어 색의 중요성에 의미를 두어 그만의 감수성을 표현하였다. 꽃이 가진 여러 색들은 본인에게 큰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어 어느 순간부터 사물의 형태 보단 색이 먼저 다가오면서 다양하게 연상할 수 있는 효과를 주었다. 색에 민감하다 보니 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느낌은 에게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감각과 여러 감성을 느끼게 해주며 동시에 상징적 형상을 통해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색을 보면 색이 보여주는 연상 이미지들은 우리가 생각 하는 그 이상으로 다가온다.

유년시절부터 본인 주변은 남성들보단 여성들에게 둘러 쌓여 있었고 현재 까지도 여성들이 가장 가깝게 일상 안에 들어와 함께 하고 있다.

4) 바실리 칸딘스키(러시아어: Василий Кандинский, 1866년 12월 16일~ 1944년 12월 13일)는 러시아의 화가, 판화제작자, 예술이론가(art theorist)이다. 피카소와 마티스와 비교되며 20세기의 중요한 예술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그는 초기 추상미술의 주요 인물 중 한명이다. : 일반적으로 그는 최초의 현대추상작품을 그린 작가로 평가된다.-그 작품은 1910년에 그려진 수채화로서 무제이나 그 그림 뒤에 추상수채화라는 문구가 있다. 몇몇의 역사가나 예술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구성VII(1913)의 스케치와 비슷하다는 구실로 칸딘스키가 추상화의 작자로서의 자격을 손에 넣기 위해 이 수채화의 날짜를 앞당겨 쓴 것이라고 추측했다.[한국어 위키백과]

평소에 여성들과 자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며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제나처럼 공통적인 이야기인 남성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주제로 나온다.

그들이 꾸미는 이유는 본인의 만족보단 타인의 만족을 위한 부분과 여성스럽고 아름답기만을 원할 때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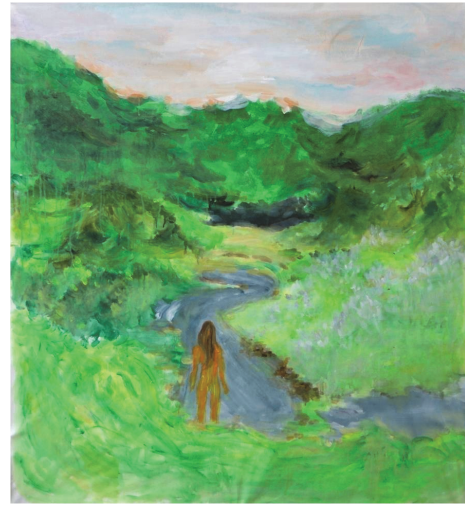
외모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 될 때 여성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일상속의 행복이 유지 된다 는걸 알게 되었다. 본인 주변의 여성들은 과거 남성들만큼 배웠고 여러 그룹에 속해있지만 실은 약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의존적인 존재들로 치부되어 변화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주제인 꽃은 여러 이유 때문에 강인하지 못한 육체와 정신으로 상처받고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상에서 관찰한 그들은 타인의 시선 속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으로 타인에게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하는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적합한 주제였다.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상에서 본 그들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의 자신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으로 타인에게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토해내곤 했다. 감정을 표현 하는데 있어 색채의 사용은 여러 내용들을 암시해 주고 심화 시켜준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업도 비슷한 맥락 이지만 자신만의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형태로써 솔직하고 강인하지만 부드러운 색을 이용하여 꽃이라는 주제안의 여러 의미를 크고 작은 터치로 표현하고 주관적인 표현을 추구할 수 있는 효과로 표현주의 작업을 통해 좀 더 특징 있게 진행 하고자 한다.

3. 작품 설명



[작품 1] 알려줘/130.3×97.0cm/종이에 혼합재료/2013

본인의 작업 「작품 1」에서 별거벗은 여성이 등장한다. 인물은 젊은 여성의 별거벗은 몸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접대부이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그들의 인터뷰 기사를 접한 후 그들의 삶에 호기심이 생겨 주변 인물들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삶을 유추해 보았다. 하나의 상품으로 치부되어진 그들에겐 가격이 책정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하였지만 결국엔 소수의 약자일 뿐이었다. 화면 가운데에는 여성이 거꾸로 누워 풍만한 몸체와 그 몸체를 부끄러운 듯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주재료인 아크릴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의 선과 면으로 덧발랐다. 여러 겹의 터치가 쉼 새 없이 반복되고 인물과 배경의 색의 대비되는 표현방법으로 그들이 겪는 상실감과 허망함이 느껴지도록 바탕색을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였고 표현대상인 여성의 몸이 화면 안에서 중심이 되도록 표현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약자의 모습이 감상자로 하여금 어떻게 느껴지는지 의문이 들었다.



[작품 2] 알고 싶다 너를, 종이에 혼합재료, 116.8×91.0cm, 2013

[작품 3] 끝은 어딜까, 종이에 혼합재료, 131×120cm, 2013

「작품 2」, 「작품 3」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의 인물들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유토피아'⁵⁾다. 앞서 말했듯이 성범죄나 하나의 상품이 되는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해 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크다. 그들은 피해를 입고도 주변인들에게 호소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반문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을 보며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화면 속 자연물은 서로 얽혀있으며 미묘한 정적감이 흐른다. 작업을 진행할시 본인이 느낀 감정인 '외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인물의 밝은 색과 무채색의 배경이 함께 화면 안에 공존하지만 해소 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며 인물의 뚜렷한 이미지 대신 모호한 분위기를 구축하여 작품의 깊이를 심화 시키고자 했다.

5)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다음 국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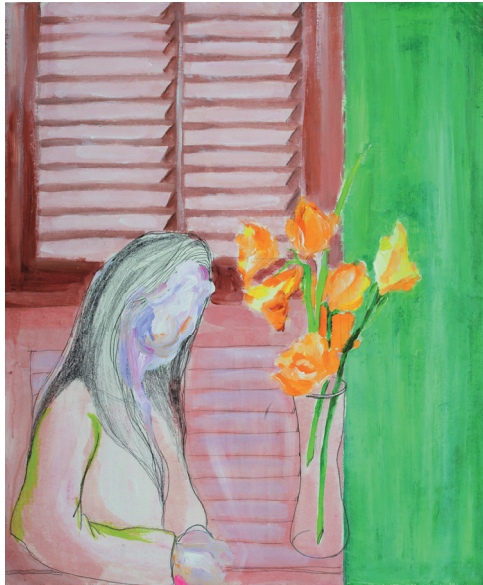


[작품 4] 접시꽃, 종이에 혼합재료, 145.5×102.5cm, 2013

「작품 4」 우연히 발견하게 된 꽃이 소재가 되면서 애착을 가지고 작품화 시키며 변화를 겪게 되는 작업이다.

위 작품들과 같이 여성이 등장하지만 화면 안에서의 비중이 커지며 주변의 꽃들은 수직선상으로 길게 뻗어 자라나고 있다. 꽃은 분홍색 계열로 표현되어 있고 가녀린 줄기에 애처롭게 매달려있어 위태로워 보인다.

이는 나약한 여성이 현실을 직시하고 강해지길 염원하며 그린 작품이고 꽃은 단순한 형태지만 확대시켜 화면에 표현하였다. 인물을 제외한 공간은 흐르는 물감과 꽃무리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꽃무리에 둘러싸인 여성은 분출하고 싶은 열망을 꽃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직접 얼굴을 보여 보는 이에게 직접 전하진 않는다. 대신 작품을 통해 여성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감상자로 하여금 유추하도록 한다.



[작품 5] 수선화와 너, 종이에 혼합재료, 72.7×60.6cm, 2013

「작품 5」 다른 작업과 달리 화면의 구성은 인물이 뒷모습이 아닌 얼굴의 옆 부분이 화면의 중심이 되어 수선화와 같은 공간속에 있다. 여성과 꽃병에 꽂혀있는 수선화가 있다. 수선화를 보고 있는 여성의 얼굴은 뚜렷한 형상으로 표현 하는 대신 외모도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조롱하고자 아크릴물감을 사용하여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도록 표현했다. 인간의 미의 대한 욕구는 선사시대 때부터 이어져왔다. 먼 옛날 인류는 조개껍데기나 식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치장하였다. 미의 기준은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미의 기준은 없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⁶⁾

6)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1908년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 근교의 팔레오세 지층에서 고고학자 Josef Szombathy에 의해 발견된 11.1 cm 키의 여자 조각상이다.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어란상 석회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석간주로 칠해졌다. 1990년도에 이루어진 주변 유적의 층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 석상은 22000년에서 24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으로 표현한 여성상이다. 커다란 유방을 늘어뜨리고, 허리는 매우 굽었으며, 배는 볼록 나와 있고, 지방이 풍부한 엉덩이는 매우 잘 발달해 있고 [1] 성기가 강조되어 있어서, 생식과 출산, 다산의 상징으로 주술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처럼 반대로 미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상징한다. 외모 지상주의가 주는 미의 고정관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우리사회의 만연한 외모지상주의가 완화되길 바라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작품 6】 창문 밖, 종이에 혼합재료, 53.0×45.5cm ×2, 2013

「작품 6」은 본인이 자주 보는 창문 밖에서는 얼굴은 희미하지만 여러 명의 여성과 남성들이 즐겁게 놀이를 하는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즐거워 보였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잡히지 않기 위해 어디론가 도망치는 모습과 같이 느껴졌으며 바로 종이에 드로잉과 결합하여 장지에 스며드는 효과와 번짐을 이용하여 채색작업을 진행했고 창문 밖이 가지는 공간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하는 곳으로 두려움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들을 억압하는 차별된 사회적 제도나 자본 없이 그들이 가지는 여러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면 하는 본인의 바람을 기대하면서 작업에 표현된 엉뚱한 모습까지도 유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한 바라며 작업을 진행했다.



[작품 7] 나를 봐주세요, 종이에 혼합재료, 116.8×91.0cm, 2013

「작품 7」 위 작품은 본인에게 제작 과정 중 기법 적으로 변화와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안의 꽃은 흔들림 없이 아래에서 위로 곧게 뻗어 있다. 여리고 약한 존재로만 인식한 꽃에서 어느 날 강한 생명력을 보게 되었다. 밝은 배경색과 크고 작은 점들 사이에 가려져 있는 여성은 현실에서 지친 심신을 이끌고 상념에 젖어 누워있다. 독특한 화면 구성이 주는 안정감과 풍성하고 생동감을 주는 꽃이 서로 어울려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말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여러 겹의 흐르는 물감의 흔적들은 비가 오듯 색과 여백 사이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고 인물의 이야기를 뒷받침 해주어 꽃의 이미지를 살려주고 있다.



[작품 8] 너에게, 종이에 혼합재료, 72.7×60.6cm ×2, 2013

「작품 8」 작품부터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인물대신 꽃을 의인화 시켜 표현하였다. 그만큼 꽃은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면 안에서는 꽃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꽃과 잎 배경은 보색으로 대비를 주고 있다. 꽃들은 서로를 포용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꽃들에게 사람의 감정을 심어주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우울함을 숨김없이 내비치도록 하며 상황에 노출되어 절제하지 못하는 슬픈 감정을 표현했다. 흐르도록 방치해둔 아크릴 물감은 즉흥적이면서 우연적인 효과를 활용하고자 했으며 꽃 주변은 여러 점과 선이 만나 면이 되면서 사물의 연관성을 화면에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배경에 쓰인 파스텔 톤의 색상들은 화면의 안정감을 주고자 구성했다.



[작품 9] 갠히다, 종이에 혼합재료, 162.2×130.3cm, 2013

「작품 9」 꽃잎의 형태가 반추상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다. 꽃잎들은 흐르고 적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으며 앞서기와 즐기는 생명력을 이어 가고자 힘겹게 지탱하고 있다.

색채의 대비를 이루기 위해 원색을 사용하였으며 배경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겹의 두터운 덧칠을 통해 거친 느낌이지만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였고 흐르도록 방치 해둔 물감은 즉흥적이지만 우연의 효과를 주어 화면을 적시듯 표현했다. 슬픔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타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여성을 기억하며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복잡한 심경을 알아가고자 하였다. 본인의 삶과 밀접한 여성들을 보며 감상자의 모습으로써 꽃이 주는 시각 적인 부분은 화려한 색이지만 꽃을 반복함으로써 꽃이 보여 주고자 하는 꽃 몸 전체로 뿜어내는 슬픔은 화려함이 아닌 딱딱함을 보는 이로 하여금 아프도록 화려하게 재현해 내고 있다.



[작품 10] 커튼 뒤에서, 종이에 혼합재료, 60.6×72.7cm, 2014

「작품 10」 살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커튼 뒤에는 이름 모를 꽃이 있다. 꽃을 본 순간 꽃이 주는 강렬함이 있었다. 꽃은 본래 시든 것처럼 힘이 없었고 물을 줘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축 늘어진 모습으로 창가에 있었다. 생을 다한 듯 죽어가지만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하는 일념이 느껴져 안타까웠던 당시의 감정을 작업으로 옮겨 진행하며 비록 가느다란 줄기에 생(生)이 달려있지만 짧은 생(生)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마음에 감명을 받아 본인은 화면에 이 꽃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자 강렬한 색의 꽃잎을 형태를 왜곡 시켜 만들어 주었고 잎사귀 끝에는 붓으로 물감과 물을 듬뿍 적셔 물을 주듯 한 방울씩 떨어트려 주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면서 점을 찍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크고 작은 점들이 생겨났으며 점들이 굳어 잎사귀의 왜소한 모습이 아닌 균형 잡힌 꽃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작품 11] 끼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다, 종이에 혼합재료,
145.5×112.1cm, 2014

「작품 11」 다수의 뿔박받고 타인들의 시선에 위축되어 현실을 살아가던 다수의 군상들을 표현하였다. 한마음 하나의 목소리를 한데 모여 개인이 아닌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응집하여 표현했다. 화면 안에는 점들이 꽃과 여백 사이로 찍혀있는데 이 점들은 시들어가는 꽃의 그대로를 재현해 낸 것이 아닌 작업 진행시 느꼈던 본인의 감정에서 여과적인 부산물의 표현으로 흐르는 물감 대신에 점으로 상징 되었고 꽃과 여백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특징으로 상징화 시켜 표현 했고 사회 속에서 개인이 겪는 약자의 불합리함을 무력하게 개인이 소화하는 것이 아닌 관찰한 그들의 단면을 솔직하게 느낀 감정 그대로를 표현 했다.



[작품 12] 기억 속에서, 종이에 혼합재료, 162.2×90.7cm, 2014

「작품 12」 본 작업은 겨울을 체감하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했다.

겨울나무는 본인에게 무한한 소재를 제공해 주었다. 나무가 가진 표면의 느낌과 특징으로 감성적으로 구현하려 하였고 강렬한 색보다는 따뜻한 색으로 일상에서 관찰하게 된 형상들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안개가 낀 화면 안에서 외롭게 지탱하고 있는 나무들 표면에는 밝은 색으로 채색을 해주었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공간감을 표현했다. 뿌연 배경 과 나무는 생명이 말라가는 겨울이지만 제일 약한 나무에서는 초록 생명이 피어나고 있다. 역경을 딛고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은 여리고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주변의 여성들을 관찰한 직후 본인의 감정이다. 변화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그들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겨울나무에 상징화 시켜 표현 하고자 했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일상 안에서의 관찰을 통한 여성, 그리고 유년시절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 꽃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에 대해 논하였다.

19세기말 부르주아 여성들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현재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진출과 지위향상이 있음에도 구여성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본인 역시 여성이다 보니 주위엔 동성친구들인 ‘여성’과 연관된 일들이 많다. 그들의 이야기는 늘 그렇듯 한정 되어 있는 주제였다. 다양한 역경들로 인해 삶은 고독과 슬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타인의 시선 등을 의식하는 경우를 그들이 들려주는 자전적인 이야기들은 본인에게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이처럼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지만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사회 구성원 안에서 이중, 삼중으로 격고 있는 차별과 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 본인은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타인이자 그들이 되어 감정이입을 통해 지켜보는 과정은 그들이 겪는 사회와 가정안에서의 갈등과 대립, 자연스런 감정의 변화가 있었고,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타자로서 우울한 감정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며 작업의 발단이 되었다.

꽃의 형태는 작품으로 표현될 때 그 대상에 따라 형태를 재구성 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다 보면 본래의 이미지와는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꽃의 형상들은 본인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주로 꽃은 주로 여성의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되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양하다. 꽃은 여리고 가녀린 존재 이지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많은 이들의 활력소가 된다.

부드러움과 강한 생명력이 일상생활 안에서의 여성들을 꽃의 표면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순화시켜 그들의 모습을 감정 이입시켜 내적 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관심이 있었고 작업을 점차 진행 하면서 꽃과 여성이 등장하는데 표현대상인 여성에 중점을 두었고 주변의 장식적인 역할로 꽃을 표현하였지만 작업이 진행 될수록 꽃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성은 화면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주변의 가장 가까운 이들을 관찰하며 시작된 작업은 앞으로 꽃에 중점을 두고 꽃에 대한 관찰과 여러 방식의 표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진취적인 본인의 태도와 함께 개인이 갖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작품을 많은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밀도 있게 나아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신지영, 『문화연구로 본 한국 현대 여성미술사 꽃과 풍경』, 미술사랑, 2008
- 천경자, 『탱고가 흐르는 황혼』, 세종 출판사, 1955
- 정중현, 『천경자의 환상 여행』, 나무와 숲, 2006
- 이임하,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 영희, 2015
- 김지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삶 사회적 구성과 결과 (반양장)』, 한국 학술정보, 2006

논문

- 김유순, 「千鏡子の 彩色畫에 관한 繪畫世界 研究 = (A) Study of Chun, Kyung-Ja's artistic view in color paintings」 2003
- 원희운, 「천경자 작품에 나타난 미술치료의 상징적 요소 연구 : (분석심리학 이론 중심으로) = A Study for Factors of Art Therapy Implied in Pieces of Cheon Kyung Ja (Based on Analytic Psychology)」 2013
- 김지은, 「천경자 회화에 표현된 상징성 연구 = (A) study on the symbolism of Chun Kyung Ja's painting」 2010
- 이미경, 「일상에 내재된 여성의 자아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xpression of Female Ego Immanent in Daily Life」 2015

ABSTRACT

Symbolic painting studies of women with flowers

- Based on My Works -

KIM JIN SOL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Women have a role and value within a social context,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important members of another organization, family. From the past to present, women have endeavored to fit ideal female models that both a society and individuals wanted, to fulfill their roles. These days, women are put under many layers of stressful factors, including work and childcare, and I realized that women often lead a standardized format of life to serve others' needs, rather than for their own satisfaction.

A continued exposure to coercion and oppression from others makes it difficult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a reality and an ideal state, and leaves one negligent of his or her own feelings. Gradually women wither from the sense of loss, anguish and pain.

The media frequently covers crimes. Women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crime, and I learned that they may suffer from secondary injury of the crime.

My aim is to relay the story that victimized women want to tell, through the characters in my work, and I came to assimilate with these women as I observed their daily life, and tried to interpret social phenomena from their viewpoints.

Many people advocate for a society of gender equality in various social contexts, and I had doubt over women who continue to be passive and reserved, without taking on a brave and pioneering attitude, and used flowers as a symbol for their emotions. Their images change in different settings, and I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women's inner feelings and the symbolic meaning of flowers. Afte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lower and femininity, I tried to create something that can be convincing to many people, by changing my old thoughts and ideas that had been long tamed by a rigid norm of 'femininity' within Korean society. The focus was put on peculiar expressions coming from a juxtaposition of women's inner feelings and the symbolic meaning of flower, going beyond the boundary of feminine images that are regarded as desirable by a society.